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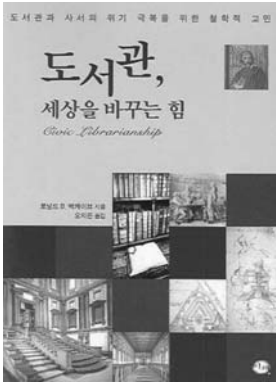


독서치료 연구

저자 임성관 | 출판사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 2007/11 출간

독서치료의 길을 제시하는 책. 전형적인 이론이나 딱딱한 사색의 글들이 아니라, 현장감이 넘치는 통찰들을 담고 있다. 저자가 본격적으로 독서치료를 연구하기 시작한 석사학위 논문부터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실제 임상장면을 통해 계획하고 실천했던 프로그램들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제출했던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저자 임성관은 한국사이버정보대학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을 졸업하고, 현재는 서울 불교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으며, 한국독서치료학회에서 운영하는 독서치료전문가 과정 1기 수료, 숙명여자대학교 사이버교육원 아동교육전문가과정 독서치료 과정 1기 수료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휴독서치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독서치료 프로그램들은 도서관, 복지관, 재활원, 병원, 학교 등에서 발달적·임상적인 측면으로 적용되어 임상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을 다시 논문과 책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물론, 숭의여자대학 문헌정보과와 도서관의 강좌를 통해 널리 보급되고 있다.



도서관, 세상을 바꾸는 힘

저자 로널드 B. 맥케이브 | 역자 오지은 | 출판사 이채 | 2006/09 출간

도서관과 사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고민을 담은 <도서관, 세상을 바꾸는 힘>. 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래의 사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시민사서'라는 응축된 개념으로 정리한 책이다.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교육을 제공한다는 전통적인 공공도서관의 임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공공도서관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자인 사서들이 '시민사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공공도서관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의 새로운 공공도서관과 사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아직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우리에게 논쟁의 지점을 던지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로널드 B. 맥케이브(Ronald B. McCabe)는 루터 대학을 졸업하고 캔터키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사서로 일하기 시작한 1975년부터 도서관 지도자 또는 운영자로서 다섯 곳의 커뮤니티에서 일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레이스 빌에서 사서로 일했으며 아이오와의 레 마스와 일리노이의 몰린과 샴페인, 위스컨신의 래피즈에서는 도서관 이사로 일했다. 그는 현재 위스컨신 래피즈의 맥밀란 미모리얼 도서관의 이사로서 지역사회 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히말라야 도서관

저자 존 우드 | 역자 이명혜 | 출판사 세종서적 | 2008/01 출간

최근 "사회기업가(Social Entrepreneur)"라는 말이 익숙해지고 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일하되 기업가적 모험정신으로 공익을 실천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인물모델-네팔을 비롯한 제3세계 빈국들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열정을 쏟아 부은 한 사회기업가의 이야기이다. 그는 네팔, 인도, 베트남 등의 오지에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학교를 세웠다. 3,000권의 도서관을 지었고 150만 권 이상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 모든 것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이뤄낸 일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히 자선사업의 성공담을 과시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열정을 바친 한 남자의 고백록이기도 하다. 10년 전 그는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었다. 세계적인 기업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지사 서열 2위, 촉망받는 30대 임원이었다. 고도의 효율을 자랑하는 조직을 이끌고 있었고 사세는 확장되고 있었으며 수익이 엄청나게 늘면서 연봉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눈앞은 탄탄대로였다. 어느 날 그는 회의가 들었다. 인생이란 단지 이것뿐인가, 의심이 들었다. 그는 사표를 냈고,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마음먹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책 '히말라야 도서관'은 세계의 오지 마을, 개발도상국가에 책을 전하고 도서관과 학교를 짓는 단체인 '룸투리드'의 이야기이다.